

갑자기 선종한 요한 바오로 1세 교황의 짧은 재임에 대한 아쉬움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1978년 10월 1일 자 서울주보는 요한 바오로 1세 교황님이 선출되는 과정과 순간, 인간적인 고뇌가 담긴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이렇게 자세하게 지상중계를 하듯이 설명을 실은 것이 흥미롭습니다.

“어제 아침 조용한 마음으로 씨스틴 성당에 갔습니다. … 제게 위기가 다가오자(교황 선거에서 자신에게 표가 몰리기 시작하면 그것을 위기라고 표현한다) 제 옆에 있는 동료가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말을 속삭였습니다. “용기를 내시오! 주께서 집을 지어주시면 그것을 질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입니다.”

새 교황명을 지은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 23세 교황님의 교구의 후임 교구장이라는 연과 몇 달 전 바오로 6세 교황께서 성 마르코 광장의 2만여 명의 군중 앞에서 당신의 영대를 벗어 자신의 어깨에 얹어주어 얼굴이 홍당무처럼 되었다는 에피소드를 전합니다. 그래서 요한 바오로의 이름을 택하는데 요한 23세 교황님처럼 지체롭지 못하고 바오로 6세 교황님처럼 자질과 학식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그분들의 자리를 이어야 한다며 겸손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이 교회에 봉사하는 길인가를 모색할 것이며 신자들의 기도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10월 8일 자 주보에서는 요한 바오로 1세 교황님의 갑작스러운 선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 자 주보에서는 이미 선종하신 요한 바오로 1세 교황님의 활

교회 소식

8월27일 일요일, 성베드로 광장에는 대성당 중앙 발코니에 나오신 요한 바오로 앞으로 30여만의 군중이 모여 들었다.
교황께서 발코니를 걸어나오시자 우뢰와 같은 끝없는 박수갈채의 인사를 받으셨고 삼중경과 교황강복을 주시기전에 하신 아래의 짧은 연설 도중에도 몇번이고 박수갈채를 받으셨다.

어제 아침 저는 조용한 마음으로 투표하기 위해 씨스틴 성당에 갔습니다. 제게 무슨일이 일어날지 전혀 상상조차 해 본일이 없었습니다. 제게 위기가 다가오자(교황은 투표에서 자신에게 표가 몰린 것을 위기라고 표현한다.) 제 옆에 있던 두 동료가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말을 속삭였습니다. “용기를 내시오! 주께서 무거운 집을 주시면 또한 그 집을 질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또 다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하지 마시오,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교황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정의 순간이 왔을때, 저는 받아 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름이 문제였는데, 무슨 이름을 택하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을때, 저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요한 교황님께서는 쓸모없는 저를 성베드로 대성전에서 주교품에 올렸었고 아직도 요한 교황님의 추억으로 가득차 있는 성 마르코성당의 주교좌에서 그분의 후임으로 일했습니다. 그분은 배사공, 수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아직 기억하고 있지요.

그리고 바오로 교황께서는 저를 추기경으로 만드셨을 뿐 아니라 몇달전에는 성마르코 광장의 넓은 인도교위에서는 2만여명의 군중앞에서 제얼굴이 홍당무가 되도록 저를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성하께서는 당신의 영대를 벗어 제 어깨에 얹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부끄러운 일은 다시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오로 교황님께서는 15년간의 재위기간동안, 제게뿐 아니라 전세계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봉사하며, 어떻게 집을 짓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 고통을 받는가 하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요한 바오로라고 불리워질 것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요한 교황님같이 마음으로부터 지체롭지도 못하고, 바오로 교황님처럼 합당한 자질도, 학식도 갖추지 않았는데 그분들의 자리를 이어야 합니다.
저는 이제 무엇이 교회에 봉사하는 길인가를 모색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로서 나를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故 요한바오로 1세의 「인권옹호」속행강조

故요한 바오로 1세 교황께서는 지난 9월 4일 4개국왕부처, 5개국원수와 더불어 몬테일 美 부통령, 지스카르 데스탱 대통령 부인을 비롯한 특별 사절단과 회견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건전한 사회의 모든 요구에 유의하고 특히 무력한 사람들, 비록 그들이 소수일지라도 그들의 권리와 존엄을 옹호하려고 하는 성령의 정책을 여러분 모두가 이어 받아 주시고 환영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교회는 세계의 모든 문제에 대한 ‘기적적인 해결책’을 지니고 있지 않으나 ‘한 가지의 기적만은 가능하며 그것은 즉 세계의 여러 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해 이들 보편적인 사랑과 초월적인 가치를 향한 개방적 자세로서 해결하게 하는 근본 정신을 심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각국 정부와 절충하면서 ‘단순명백하고 확실한’ 교회를 사용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동구 공산국들과 쿠바의 대표를 포함한 사절단에게는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나라에서 항상 자유의 존중을 향유하며 共同體의 발전에 기여하는 그들에게 정당한 지위가 주어질 것을 희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새 교황의 반공자세가 매스·콤을 통하여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쿠바는 외무차관, 항가리, 폴란드, 동독은 국가 평의회 부의장을 파견했다. 또한 소련의 브레즈네프 최고 간부회의장으로 부터도 축전이 왔다고 한다.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건전한 사회의 모든 요구에 유의하고 특히 무력한 사람들, 비록 그들이 소수일지라도 그들의 권리와 존엄을 옹호하려고 하는 성령의 정책을 여러분 모두가 이어받아 주시고 환영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교황님께서는 동구 공산국들과 쿠바의 대표를 포함한 사절단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나라에서 항상 자유의 존중을 향유하며 공동선 발전에 기여하는 그들에게 정당한 지위가 주어질 것을 희망한다.”

요한 바오로 1세 교황님의 열린 마음과 평화를 위해 누구와도 대화를 하겠다는 자세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쿠바, 헝가리, 폴란드 등 공산국가 대표들과의 만남이 흥미를 불러일으킵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었지만 만약 요한 바오로 1세 교황님께서 오랜 시간 교황으로 계셨다면 세계사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아쉬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